

축산 경기 전망

— 83년도 1/4분기 축산관측 —

김 용 진

(축협 조사부)

본 관측결과는 현재와 같은 여건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양축가 단체 및 양축농가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관측협의회에서 협의 확정된 것으로서 앞으로 가축 질병 등 사육여건이 변동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활용하기 바란다. (필자 註)

돼 지

○사육전망

'81년말 이후 계속 증가해 오던 돼지 사육두수가 '82년 12월에는 9월 대비 8.5%나 감소되어 218만 3천두였다. 9월 이후 사육두수가 이처럼 감소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들어 돼지 질병이 지방별로 극심하게 발생하여 주로 육성돈이 많이 폐사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관측시(10월)에 질병 피해 정도를 관측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들이 피해 상황을 노출하기를 극력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질병이 최근에도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의 사육두수는 앞으로 질병 발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병이 모돈(母豚)에는 별 영향이 없어 '82년 12월 현재 모돈수가 43만 9천두나 될 뿐만 아니라 사육두수 추정에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양돈 배합사로 공급량이 '81년 6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양돈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후 총두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재의 여건하에서 3월 이후 사육두수를 추정한 결과 예상 질병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작년말에 비하여 3월에는 약 3%가

증가한 225만두 수준, 6월에는 약 14%가 증가한 250만두 수준, 그리고 9월에는 약 19%가 증가할 260만두 수준으로 각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및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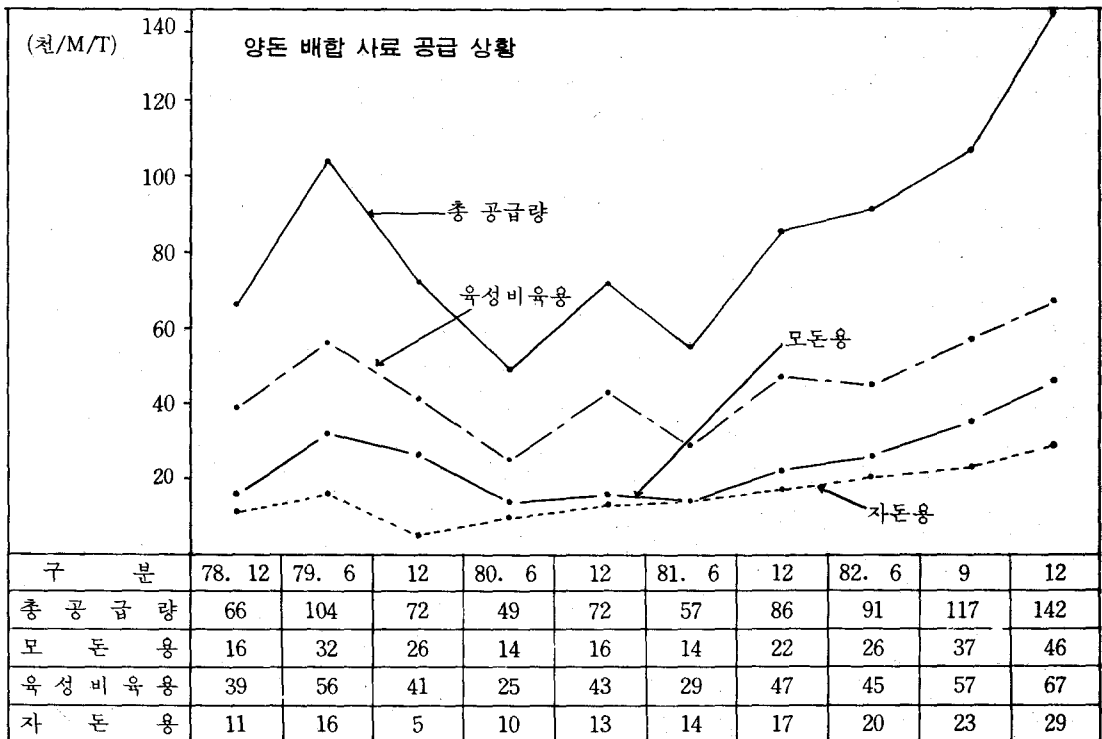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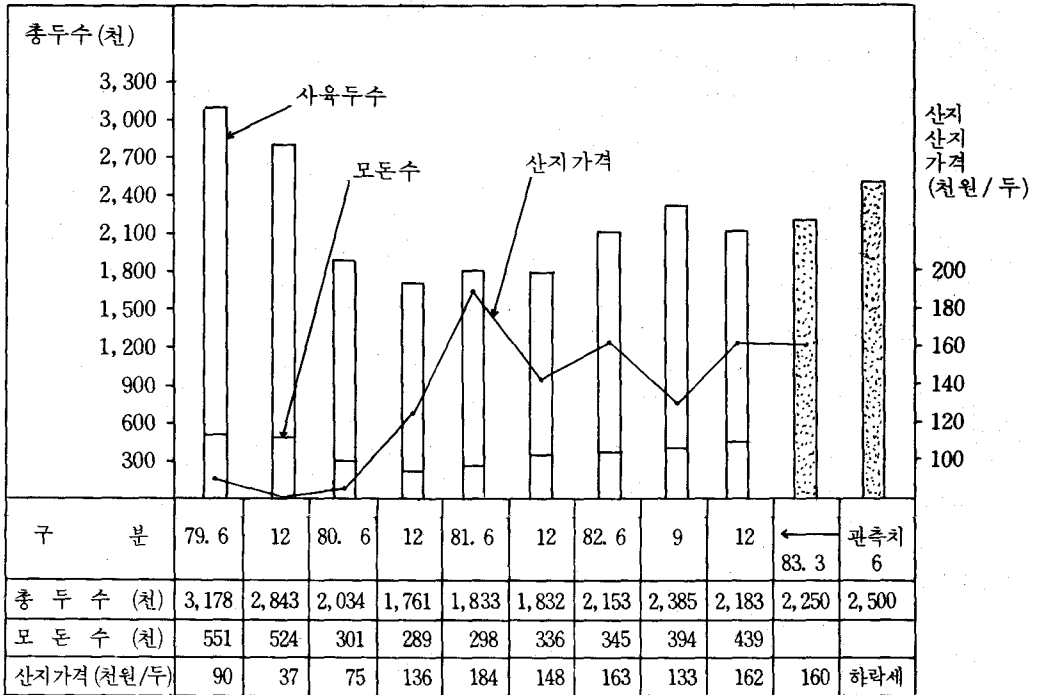
'80년 6월부터 돼지 두수의 안정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80년 6월 이래 작년 10월말까지 가격 또한 장기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이후의 돼지 질병에 의한 출하돈 감소와 돈육수요 증가시기인 11월 이후구정까지는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수입 최고가 가격을 600g당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수입최고기 주요의 증가로 구정 이후 돼지고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돼지고기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다. 2월 현재의 돼지 가격을 보면 산지가격은 90kg 마리당 160,000원선, 도매가격은 지육 kg당 2,7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3~4월 경에도 출하물량의 상대적인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부족량이 점차 줄어들어 따라 돼지 가격도 2월 가격에서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5월 이후의 출하물량은 2월 이후의 질병 피해 정도에 따라 5%의 출하량이 감소될 것으로 가정하여도 5월 이후는 상대적인 출하

돼지 두수 추이



물량 파다가 예상되고 또한 비수요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완만하게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호황 뒤의 가격침체는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두수 증식에 각별한 주의를, 자돈 및 육성돈 폐지의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겠다.

산란계

○사육전망

'78년 이후 장기간의 계란값 침체에 의한 폐업 및 전업과 '81년 하반기부터의 후두기관염(ILT) 발생에 의한 입추량 조절 및 폐사 등으로 '82년 3월 산란계 수수는 약간 감소 현상을 나타냈으나 그후 '82년 12월까지는 완만한 증가 상태를 나타내어 2천9백2만6천수가 되었다.

이는 '82년 3월의 산란계 수수감소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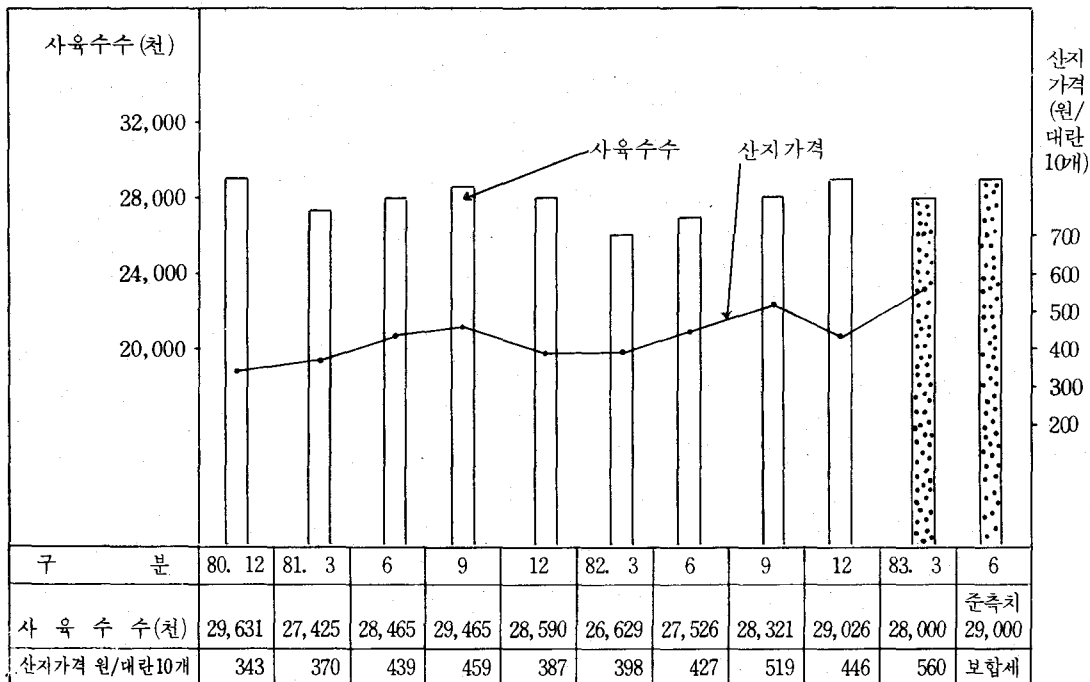
출하물량이 감소되자 '82년 5월부터는 계란값이 서서히 상승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라 본다.

그런데 '82년 11월 경에 계란값이 다시 하락세가 되고 육계값은 상승세를 보이자 채란업자는 일부 노계를 도태시켰으며, 겨울철 연로비 절감을 위한 입추량 조절에 따라 금년 3월의 전체 산란계 수수는 2천8백만수로서, 작년말 대비 약 3% 정도 감소 현상을 보이겠지만 작년 3월보다는 약 5% 수준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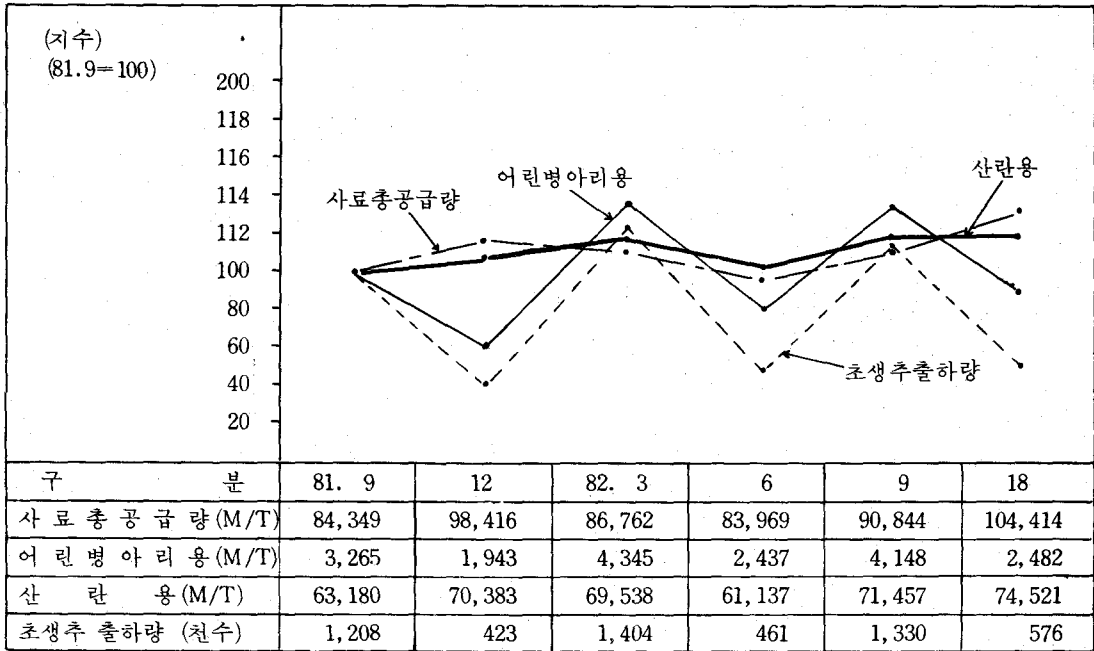
한편, 작년말 이후 2월 현재까지 계란값이 강세를 보이자 대부분의 산란계 사육농가들이 노계 도태를 보류하면서, 봄철과 가을철의 수요기에 대비하여 이제까지의 규모 축소에서 확대 현상으로 전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6월과 9월의 산란계 마리수는 2천9백만수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정도의 약한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장기간의 계

산란계 수수 추이



산란계 수수 관련요인 변동지수



란가격 침체를 경험한 탓으로 마리수 증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급및 가격 전망

작년 봄 산란계 마리수의 감소로 장기간의 제란값 침체가 작년 5월부터 회복세를 보인 후 8월부터는 오랜 만에 생산비를 웃도는 시세를 보였다. 작년 11월은 계절적인 수요감소로 약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연말연시 및 구정 수요기에는 상대적인 물량부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구정 이후 2월 하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구정 직후의 일시적인 수요감소 때문이라 생각되며, 질병에 의한 폐사와 산란을 저조를 감안할 때 3~5월의 소풍철 수요기에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후 6월부터는 금년초에 입식된 병아리가 산란을 시작하게 되며 계절적인 비수요기를 맞게 되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란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절변동이 심

해서 봄 소풍철과 가을 소풍철 및 추석기에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추세이나 현재의 채란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보면 금년도의 제란값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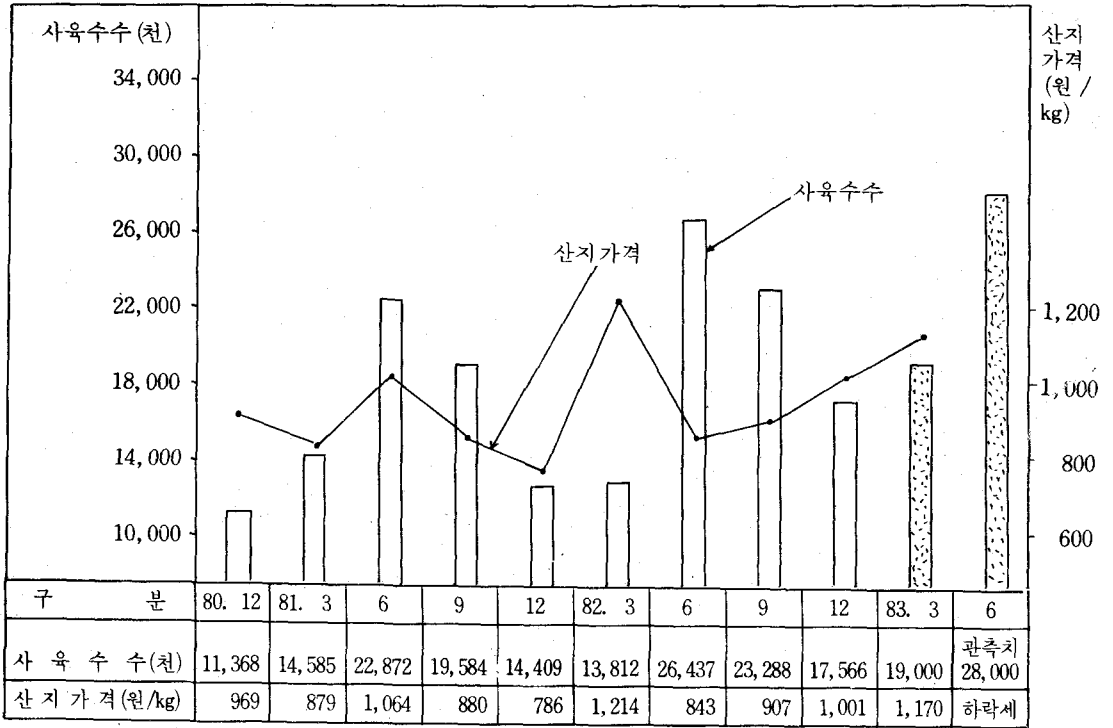
육 계

○사육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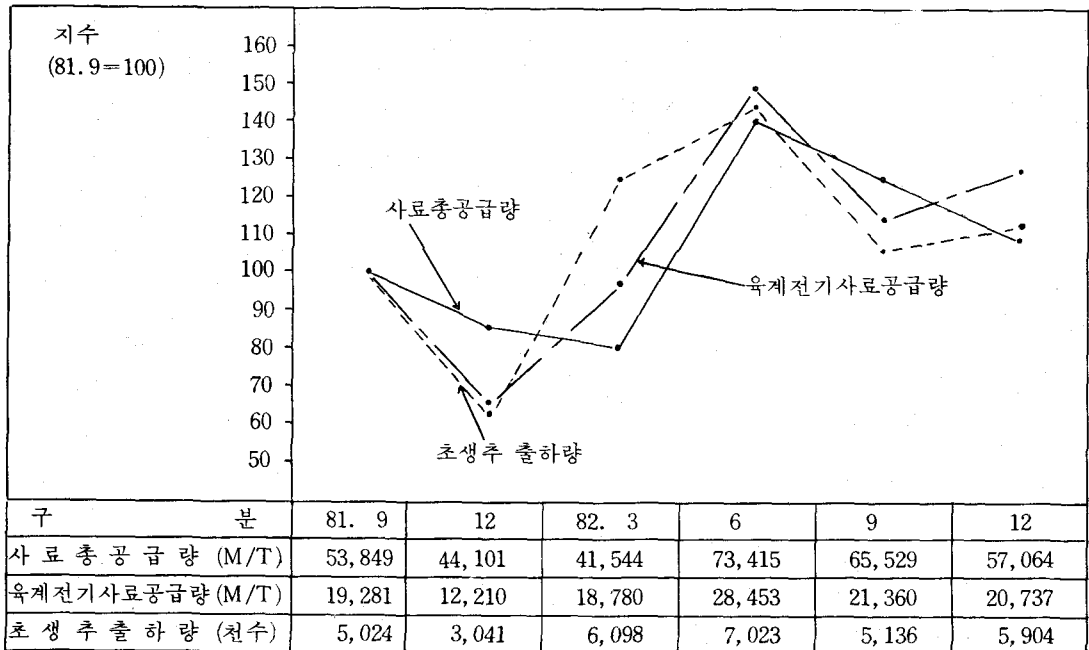
매번 반복되는 말이지만, 육계의 사육수수는 6월에 제일 많고, 12월에는 가장 적은 것이 일 반적인 추세이다.

작년말에도 6월 이후 계속 감소현상을 보여 작년 12월초에는 1천 7백 56만 6천수로서 9월 보다는 2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 2월 현재에도 육계가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봄철 소풍기 수요에 대비하여 사육수수는 1천 9백만수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의 증가가 예상되며 6월에도 여름철 성수

육계 수수 추이



육계수수 관련요인 변동지수



기에 대비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6%가 증가한 2천 8백만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9월에는 여름철 성수기 이후의 수요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가 감소된 2천 1백만수 수준이 될 것으로 각각 전망된다.

○수급및 가격 전망

'81년말과 작년 봄철의 육계 마리수가 예상외로 감소되어 작년 봄철에는 호황을 보임에 따라 6월에는 오히려 과다 사육으로 성수기인 7~8월에도 봄철보다 하락세를 나타냈다. 금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작년말의 후두기관염(ILT)예방을 위한 계사소독과 겨울철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계사를 비우거나 입추량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작년 11월 이후 금년 2월까지도 생산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육계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육계 입추량을 증식시키고 있으므로 3~5월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약보합세를 보이겠으나 6월 이후의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은 6월을 고비로 다시 회복되지만 6월 사육수수가 작년 동기보다 약 6% 정도가 증가될 전망이므로 3월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LP가스시대 도래

내린 가스값으로 고통스런 육추에서 해방되어
편하고 효율적인 육추를...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



적외선 가스육추기는 태양열처럼 아래로 내려쬐인다. 병아리와 바닥이 잘 보온되며, 육추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노동력을 80% 이상 절약한다.